

## 물류, 무역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이충배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이의준

중앙대학교 글로벌물류학과 석사

노진호

순천향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 An Empirical Study on Motivation Factors Affecting Logistics and Trade Startup

Choong-Bae Lee<sup>a</sup>, Eui-Jun Lee<sup>b</sup>, Jin-Ho Noh<sup>c</sup>

<sup>a</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Department of Global Logistics,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sup>c</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Soon Chun Hyang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0 October 2021, Revised 27 October 2021, Accepted 28 October 2021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derive the importance of motivating factors for start-up when deciding to start a business in the logistics and trading industries, and to compare, derive, and identify which motivating factors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start-up decision. In this study, 4 high-level factors such as career factors, policy/institution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and 12 low-level factors were derived from those four factors. Based on thi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established and prospective entrepreneur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Manufacturing companies recognized the individual's capabilities and government support for them as important. Beside, service companies recognized the industrial environment that could generate economic benefits as important.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group, it can be seen that factors that are recognized as important within each group have connectivity and show the same directivity.

**Keywords:** Logistics, International Trade, Entrepreneurship, Start-up, Motivation factors, AHP, T-test

**JEL Classifications:** F10, F13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4th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the Shipping, Port and Logistics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p>a</sup> First Author, E-mail: [cblee@cau.ac.kr](mailto:cblee@cau.ac.kr)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dmlwns9501@gmail.com](mailto:dmlwns9501@gmail.com)

<sup>c</sup> Co-Author, E-mail: [nojino@sch.ac.kr](mailto:nojino@sch.ac.kr)

© 2021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세계 선진국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해결책으로써 창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창업은 전 세계적인 관심 분야가 되었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무역, 전자 무역 등의 업종에서도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의 활성화에는 개인 또는 조직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 경험, 창업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73.3%로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물류산업은 무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런 점에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과 물류에서의 창업은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개선 그리고 경제발전 등에 있어 중요성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무역과 물류 프로세스와 실행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과 물류에서의 혁신적인 창업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교류가 줄어들면서 '비대면(Untact)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국내 창업의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무역과 물류분야에서 창업의 동기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창업 활성화는 중요한 국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와 무역 분야에서 창업 결정 시 동기요인을 도출하며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간의 창업동기 요인의 차이의 비교분석을 통해 창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II. 창업 현황 및 이론적 고찰

### 1. 창업 환경과 현황

#### 1) 창업의 환경

2010~2019년까지 경제성장율은 3~4%, 실업률 3%대를 유지하여왔던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율은 -0.9%로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4%대로 상승하였다. 2021년 2월 기준 실업률은 4.9%, 실업자 수는 135.3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1%에 달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의 해결책으로 창업을 주목하였으며 내수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 고용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기술이 접목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한 신규 창업자들의 성공 사례가 증가하면서 창업의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으며 창업자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창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업 이외의 소규모 부업으로 1인 창업이 증가한 것도 큰 이유로 존재한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홈네트워크를 통해 집에서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국내 창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화의 혁신적인 창업은 한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혁신적인 사업화 모델을 보유한 혁신 분야 창업기업이 일반 분야 창업기업보다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에는 비중이 매우 낮았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분야는 2017년 이후 6개의 사업화 모델이 상위 30위 안에 새롭게 진입하여 최근에는 창업생태계를 주도하는 매력적인 시장임이 확인되었다(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1).

## 2) 우리나라의 물류와 무역 창업 현황

2018년 1월에 발표한 중소기업부에 의하면 신설된 법인은 1만 41개로 서울 곳곳에 창업 관련 공간이 생겨나고 있으며(Kwak Hye-Jin and Rhee Moo-Woon, 2018) 2018년 기준으로 두 개뿐이었던 유니콘 기업은 활발한 벤처투자로 인해 2020년 기준 11개로 증가하였으나 한국 창업 현황은 지표 대비 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양적인 지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인 지표는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Kim So-Yeon et al., 2020).

Statista Research Department의 조사 따르면 1년도 채 되지 않은 한국의 신생 창업기업은 2019년 전체 창업기업의 25%를 차지하였으며 2년 미만 창업이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였다. 창업을 시작하기 전 대부분은 회사에서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및 데이터를 쌓은 상태이며 창업자 절반가량이 중소, 중견 기업에서 일했던 상태로 조사되었다. 창업자의 60%는 40대와 50대였으며 창업자의 30%가 두 번 정도의 창업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새로운 창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사업의 실패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창업 관련 조사대상의 40% 이상이 초기 자본 지원금이 창업에 가장 시급하였으며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하였다. 2019년 기준 창업 1년 차 회사 수는 가장 많은 409,313개, 2년 차 369,751개, 3년 차 276,108개, 4년 차 220,662개, 5년 차 177,230개, 6년 차 155,095개, 7년 차 139,632개로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의 창업기업 수는 총 1,747,791개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물류산업은 2019년 투자액이 1조 1,300억 원에 달했으며 다른 산업 중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다. 두 번째로는 소비재/서비스가 6,809억 원으로 물류/서비스의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헬스케어/바이오 4,837억 원, 소프트웨어 3,645억 원, 운송/이동성 서비스 3,597억 원, 부동산 3,275억 원, 금융 2,778억 원, 콘텐츠/미디어 1,398억 원, 블록체인 944억 원, 제조업 561억 원, 게임 502억 원 순으로 투자가 진행되었다.

## 3) 우리나라의 창업 정책

한국의 창업 정책으로는 자금지원, 조세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 매년 시행 중인 창업지원금은 창업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미 창업을 한 창업가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창업 공간 같은 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현재 창업가이거나 아이디어로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창업 지원정책이다. 정부는 창업기업을 위해 다양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청년창업 지원금이 존재한다. 청년창업지원금은 자금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도전에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이용하는 상품들보다 더욱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며 그 외에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자금,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신기술 창업 보육자금 등의 다양한 지원자금이 있으며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지원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창업 지원은 창업가들에게 시설 및 공간 지원, 컨설팅 지원 등 외형적인 지원에만 치중되어 알려진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창업 자금 지원의 경우 지원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창업가들이 대다수이며 자금 지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해양수산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음'(69.4%)이 가장 많았고, '지원받음'(24.9%),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함'(5.5%) 순으로 나타났다. 미신청 사유로는 '창업 지원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27.5%)가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 지원사업의 요건이 까다로움'(16.5%), '절차/서류가 복잡'(15.0%), '혜택이나 효과가 작을 것 같아서'(14.9%) 순으로 나타났다(KMI, 2019).

또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정책 및 조세 지원제 등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고용 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조세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Lee

Byung-San, 2015). 한국의 조세 지원제도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창업자 금지원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조세 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는 기업은 드물게 나타났다.

조세정책의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창업기업 조세 면제 정책이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에 기업이 밀집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설정하였고 수도권 과밀 권역 외의 지역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0% 감면까지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설립 후 4년간 증자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면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조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한 전체 중소기업 해당 업종 44개 중에서 31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적용된다(Lee Ree-Ha et al., 2018).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업종은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원료재생업, 건설업, 물류산업 외 다양한 업종이 있다. 또한 교육 지원이란 사업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 관련 지식 및 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잠재적 창업자들의 창업 의지를 함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Lee Jae-Seok and Lee Sang-Myung, 2015). 한국은 1980년대 초부터 일부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창업 교육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2005년 창업대학원 사업을 통해 창업 교육의 체계화를 시작한 이후 상시적이고 일정한 학문 분야를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다(Jo Yoon-Ah et al., 2015). 한국은 학생이나 일반인 창업자, 장애인 등 기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포털인 ‘K-startup’에서는 15개의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신사업사관학교, 서울창업카페,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교육 및 네트워킹 공간,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연간 8.35억 원 예산으로 약 900여 명의 창업 희망 외국인 또한 지원받을 수가 있으며 기술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교육, 창업 소양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다.

## 2. 선행연구 고찰

### 1)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

창업 활동은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기업 활동의 시작일 뿐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Kim Hyung-Jun et al., 2020).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기술의 발달로 고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대안으로 창업 활성화가 새롭게 떠오름에 따라 다양한 창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연구되었다.

Yoon Byeong-Seon and Seo Young-Wook (2016)은 대부분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에 성과를 못 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창업 초기 단계 기업 활동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준비단계 활동과 창업 초기 활동들이 창업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창업기업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정책 지속적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실행, 창업기업의 종합적 계획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Sung-Hoon and Nam Jung-Min (2016)은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현 창업 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창업 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Kim Hyung-Ho and Yoon Heon-Deok (2015)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를 한국, 미국, 일본, EU를 비교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로는 관대한 문화와 개척정신을 지닌 미국처럼 실패를 관용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정부 주도의 제도전 지원방식을 민간과 활발한 협력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변경과 유럽 회원국 권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국내 현황조사와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Park Jong-Bok et al. (2015)은 한국의 창업 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혁신주도 경제권 국가와 비교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 5년간 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의 창업 정책 효율성은 증가해 온 것으로 분석되며 2013년도에 와서는 운영의 비효율성이 근소한 차이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서 창업 정책의 기술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wak Hye-Jin and Rhee Moo-Woon (2018)은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공 모델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한국의 투자자는 중국과 비교해 비교적 위험 회피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한국의 창업 지원 정책이 중국에 비해 창업 초반부에만 극도로 집중되고 있다고 하였다.

## 2) 창업 동기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창업 의도에 무수히 많은 해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hapero, 1975; Bird, 1988; Katz and Gartner, 1988; Perugini & Bagozzi, 2001; Shook et al. 2003).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동기적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창업가 정신(entrepreneurial intent)이 더 강한지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창업 의도, 창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Jeong Yeon-Su and Cho Sung-Eui (2013)는 대학생에게 사회 우상적 요인과 창업 가치인식이라는 요인이 창업 탐색 활동 참여를 통하여 창

업 의지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창업기업가는 대학생의 창업 탐색 활동에 있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이는 창업 탐색 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대학생 창업 의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Byeong-Gweon and Jeon In-Ho (2014)는 창업 결정요인이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의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인식을 제외하고 동기별로 각각의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혼재하여 나타났다. 이에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창업 동기를 높이는 정책 시행이 중요하지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Nguyen et al. (2017)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요인을 개인적 요인, 인터넷 환경 요인, 취업장벽 요인으로 분류하고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상의 창업 의도 및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상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관련 교육을 디자인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센티브 정책,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 해외 성장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상을 창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Jo Han-Na and Kim Myung-Jin (2019)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동기의 중요도, 만족도 분석(IPA)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 지원 정책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IPA 분석 결과 자금 지원, 교육 등은 매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적인 지원에만 치중하여있어 향후 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Im Gyo-Sun and Jeon In-Ho (2015)는 조세 지원, 금융지원, 기술 지원, 경영지원, 창업 인프라 지원 5가지가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5가지의 변수 중 조세, 금융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ueger et. al. (2000)은 창업 의도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고용 상태, 정보) 또는 개인의 특성(인구통계학과 개인의 특성)의 요인은 창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창업의 의도, 개인적 또는 환경적 변수를 간접 요인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Shapero, 1982; Ajzen, 1987; Bagozzi et al., 1989).

Yoon Bang-Seob (2004)은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으로서 개인의 경력 지향성과 창업에 대한 자기 유능성을 살펴보았으며, 환경 요인으로서 개인적 환경 요인인 성공적 역할모델, 그리고 사회적 환경 요인인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력 지향성은 대체로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 지향성은 한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Eun-Kyung and Kim Joun-Jeun (2015)는 잠재적 창업가의 개인 경력 지향성, 노후 준비도,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창업 의지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 의지에 대하여 혁신지향성과 사업 지향성, 자율지향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안정 지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Chun-Ho and Yu Yon-Ho (2019)는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 의지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지원과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Young-Tae and Heo Chul-Moo (2021)는 시니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역량과 창업 지원 정책을 위주로 창업에 대한 의지를 활성화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자금 지원의 요인은 모두 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Gug-Gun and Ha Kyu-Soo (2020)는 직장인의 직무 수행 능력, 노후 준비도, 미래불안감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 수행 능력인 목표수행 능력, 노후 준비도인 신체적 준비, 내적 관계 준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관계 준비와 창업 의지, 미래불안감과 창업

의지 간의 영향 관계에서 또 다른 성공기대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Jeon Hye-Jin and Park Jae-Whan (2015)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창업, 성장, 재투자/재도전이 순환되는 창업생태계 중 심리적 특성과 창업 지원기관의 창업 교육, 환경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심리적 특성과 창업 교육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Oh Sang-Hun and Ha Kyu-Soo (2013)는 개인 특성 접근법보다는 환경론적 접근법에 따른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객관적 창업환경과 잠재 창업가의 자신감 혹은 자기효능감으로 정의되는 주관적 환경 인식이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제도 여건도 향후 창업 의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였다.

Yook Chang-Hwan and Jeon In-Ho (2014)는 창업가의 특성 요인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적인 특성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은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적인 특성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은 창업 멘토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창업환경요인은 창업 의지에 창업 멘토링이 조절 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Gnyawali et al. (1994)는 기업가정신을 개발을 위한 환경을 연구하였으며 창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정부 정책, 경제 조건, 창업 경영 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잠재력에 대해 광범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 대학생, 기창업자, 예비 창업자, 청년 창업자 등 대상을 달리하여 창업을 위한 창업가의 특성, 창업 동기 및 성공 요인,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업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관한 여러 시각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 무역업을 특정하여 해당 산업에서의 창업을 위한 동기요인을 도출하고, 제조업 종사자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차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 1. 연구방법과 변수의 설정

본 연구는 물류 및 무역 창업 동기요인들을 도출하고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실시하여 해당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AHP는 1970년대 미국 Pennsylvania Wharton School의 Thomas L. saaty 교수가 고안한 계산 모델이다. 의사결정자가 복잡한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더욱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때 의사결정자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요소를 계층적으로 분해 조정하여 문제의 전체 구조를 명확하게 구조화하여 의사 결정자에게 제일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법이다 (Park Tae-Yang, 2010). AHP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변수의 선정에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물류 및 무역 창업 동기요인으로 경력 요인, 정책·제도 요인, 환경 요인, 경제적 요인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 1) 경력 요인

경력에 창업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예비 창업자의 경력은 경력 닻(career anchor) 개념을 기반으로 자신의 재능, 욕구와 동기, 자신의 태도와 가치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것으로 여러 가지 삶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 등을 통해 형성된다(Schein, 1978). 경력 지향성은 Yoon Bang-Seob (2004)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Kim Eun-Kyung and Kim Joun-Jeun (2015)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에 창업 동기요인에 있어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위요인으로 경력 요인을 선정하였다. 경력 요인의 하위요인으로는 ‘물류, 무역 전문지식’, ‘직무 경험’, ‘창업에 대한 의지’ 세 가지로 선정하였다.

물류, 무역 전문지식은 선행연구에서 창업

관련 지식, 전공(Nguyen et al., 2017)을 선정 한 것으로 보아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직무 경험은 선행연구에서 기술적역량, 창의적 역량, 목표수행 능력, 신기술 활용 능력 (Park Gug-Gun and Ha Kyu-Soo, 2020; Kim Young-Tae and Heo Chul-Moo, 2021)을 선정 한 것으로 보아 창업 동기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창업에 대한 의지는 앞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요인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창업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Jeong Yeon-Su and Cho Sung-Eui, 2013; Jeon Hye-Jin and Park Jae-Wha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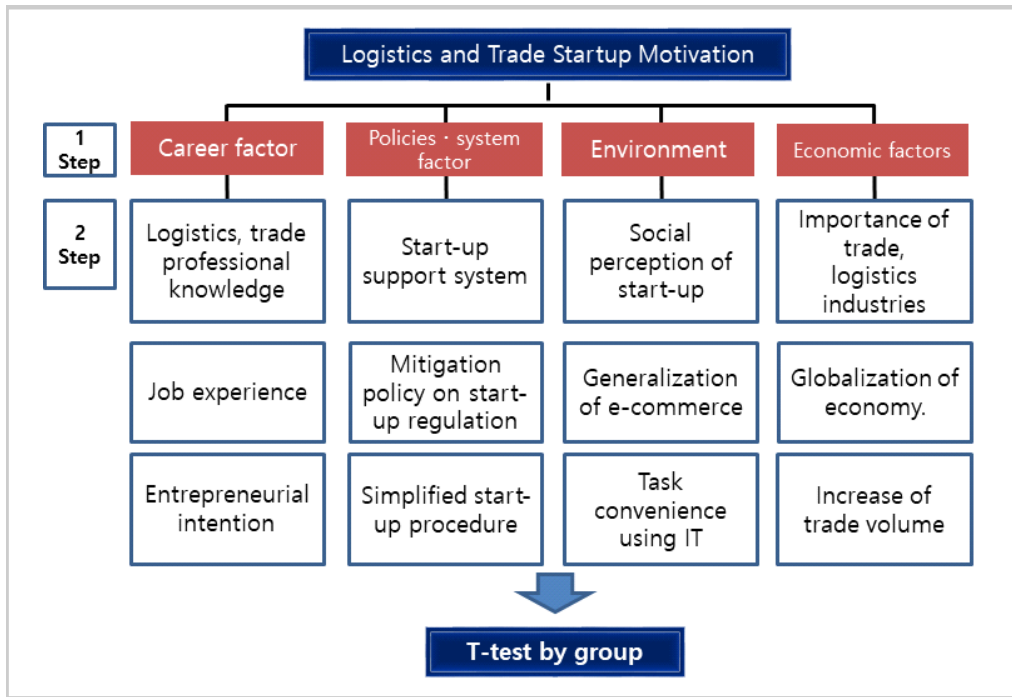
##### 2) 정책·제도 요인

정책과 제도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이며 Kim Chun-Ho and Yu Yon-Ho (2019)는 창업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창업 의지 향상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에 정책·제도요인은 국가에서 시행, 관리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동기 요인 선정에 포함되었다. 정책·제도 요인의 하위요인으로는 ‘창업 지원 제도’, ‘창업 규제 완화 정책’, ‘간소화된 창업 절차’ 3가지를 선정하였다.

창업 지원 제도와 간소화된 창업 절차는 선행연구로 선정된 조세 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 인프라 제도, 창업 교육, R&D 지원, 조인 지원, 교육 및 시설지원(Jo Han-Na and Kim Myung-Jin, 2019; Lee Byeong-Gweon and Jeon In-Ho, 2014; Im Gyo-Sun and Jeon In-Ho, 2015; Kim Young-Tae and Heo Chul-Moo, 2021; Jeon Hye-Jin and Park Jae-Whan, 2015)을 보아 창업 지원 제도의 중요성과 간소화된 창업 절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창업 규제 완화 정책은 선행연구에서는 없었지만, 미국 또한 고성장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장벽식별 및 제거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Fig. 1. Research Model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하였기 때문에(Jo Man-Seok and Kim Seon-Woo, 2017) 하위요인에 선정하였다.

### 3) 환경 요인

환경 요인이란 개체나 집단에 있어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써 Oh Sang-Hun and Ha Kyu-Soo (2013)는 객관적 창업 환경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정의되는 주관적 환경 인식이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Yook Chang-Hwan and Jeon In-Ho (2014) 또한 환경 요인이 창업 멘토링에 영향을 미친 영향을 보고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며 이에 환경 요인은 본 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중요 동기요인 중 상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환경 요인의 하위요인으로는 ‘창업의 사회적 인식’,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IT를 활용한 업무 편리성’ 선정

하였다.

창업의 사회적 인식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창업 동기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인식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선정하였다(Jeon Hye-Jin and Park Jae-Whan, 2015; Lee Byeong-Gweon and Jeon In-Ho, 2014; Jeong Yeon-Su and Cho Sung-Eui, 2013).

IT를 활용한 업무 편리성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를 하위요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의 인터넷환경과 인터넷 관련 지식(Nguyen et al., 2017)요인을 통해 정보 기술의 발달이 창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IT를 활용한 업무 편리성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를 환경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 4) 경제적 요인

대외 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 무역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물류, 무역 산업의 창업은 한국 경제를 지속해서 발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가 침체되면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산 다사형의 기업생태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Oh Sang-Hun and Ha Kyu-Soo, 2013). 이에 창업 동기요인의 선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본 연구의 창업 동기요인 선정에 포함하였다. 경제적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물류, 무역 산업의 중요성', '경제의 글로벌화', '교역량 증대' 3가지를 선정하였다.

물류, 무역산업의 중요성과 경제의 글로벌화를 하위요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경제 조건, 시장의 상황(Gnyawali et al., 1994)을 중요한 창업 동기요인으로 선정한 것을 토대로 하위요인을 선정하였다.

교역량 증대를 하위요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는 없었지만, FTA 이후 교역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한국상품의 가격 경쟁력 우위와 한국 수출 비중 증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을(Ahn Tae-Kun, 2015) 통해 교역량 증대가 경제적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 2. 연구모형

변수 설정을 통해 도출된 물류 및 무역 창업 동기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IV. 실증분석

### 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물류, 무역 창업 동기요인 연구를 위해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가 될 수 있는 제조업 종사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물류 및 무역업)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2021년 4월 30일부터 2021년 5월 20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메일과 구글 인

터넷 설문지 방식을 사용하여 총 110부가 회수되었고, 미응답 등 설문 응답이 부적절한 5부를 제외한 105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제조기업이 50명(47.6%), 서비스기업은 55명(53.4%)이며, 제조기업의 경우 남성이 28명(56.0%), 여성은 22명(44.0%)이고, 연령은 30대 18명(36.0%), 40대 15명(30.0%), 50대 7명(14.0%) 순으로, 경력은 5~10년 20명(40.0%), 5년 미만 12명(24.0%), 10~20년 10명(20%) 순으로 도출되었다.

서비스기업의 경우 남성이 40명(72.7%), 여성은 15명(27.3%)이고, 연령은 30대 25명(45.5%), 20대 15명(27.3%), 40대 10명(18.2%) 순으로, 경력은 5~10년 28명(50.9%), 5년 미만 14명(25.5%), 10~20년 6명(10.9%) 순으로 도출되었다.

## 2. 창업 동기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분석을 통해 물류 및 무역 창업 동기요인들을 쌍대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고유치 방법을 활용하여 창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먼저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집단별로 상위평가요인인 경력 요인, 정책·제도 요인, 환경 요인, 경제적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각 요인의 하위 평가요인들을 비교하였다.

### 1) 제조기업

제조기업 응답자들의 상위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는 일관성 비율이 0.05로 일관성에 무리가 없으며, 경력 요인(0.393)이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정책·제도 요인(0.217), 환경 요인(0.202), 경제적 요인(0.188)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경력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는 물류, 무역 전문지식(0.543), 직무경험(0.280), 창업에 대한 의지(0.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제도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는 창업지원제도(0.266), 창업규제 완화정책

**Table 1. Sample Demographic**

Classification		Respondents(person)	Rate(%)	
Type of business	manufacturing industry	50	47.6	
	service industry	55	52.4	
	Total	105	100.0	
Gender	manufacturing industry	Man	28	56.0
		Woman	22	44.0
	service industry	Man	40	72.7
		Woman	15	27.3
Age	manufacturing industry	Age: 20-29	5	10.0
		Age: 30-39	18	36.0
		Age: 40-49	15	30.0
		Age: 50-59	7	14.0
		Over 60	5	10.0
	service industry	Age: 20-29	15	27.3
		Age: 30-39	25	45.5
		Age: 40-49	10	18.2
		Age: 50-59	3	5.5
		Over 60	2	3.6
Career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5 years	12	24.0
		5-10 years	20	40.0
		10-20 years	10	20.0
		20-30 years	5	10.0
		Over 30 years	3	6.0
	service industry	Under 5 years	14	25.5
		5-10 years	28	50.9
		10-20 years	6	10.9
		20-30 years	4	7.3
		Over 30 years	3	5.5

(0.229), 간소화된 창업절차(0.41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는 창업의 사회적 인식(0.418), 전자상거래의 보편화(0.302), IT를 활용한 업무편리성(0.280)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는 물류, 무역산업의 중요성(0.496), 경제의 글로벌화(0.281), 교역량의 증대(0.223) 순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상위요인들 각각의 일관성 비율도 모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연계 중요도로 나타난 하위요인의 전체적인 최종순위는 경력 요인의 하위요인인 물류, 무역 전문지식의 중요성이 최종 1위로 도출되었으며, 공동 2위 직무경험, 창업지원제도, 4위 물류, 무역산업의 중요성, 5위 창업의 사회적 인식, 6위 창업에 대한 의지, 7위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2.** AHP Analysis Result of Manufacturing Companies increase of trade volume

Main factor			Sub-factor			Main factor · Sub-factor Related importance	final ranking
Factor	Importance	Ranking	Factor	Importance	Ranking		
Career factor	0.393	1	Logistics, trade professional knowledge	0.543	1	0.213	1
			Job experience	0.280	2	0.110	2
			Entrepreneurial intention	0.177	3	0.070	6
Policies · System factor	0.217	2	Start-up support system	0.505	1	0.110	2
			mitigation policy on start-up regulation	0.266	2	0.058	8
			Simplified start-up procedure	0.229	3	0.050	11
Environment factor	0.202	3	Social perception of start-up	0.418	1	0.084	5
			Generalization of e-commerce	0.302	2	0.061	7
			task convenience using IT	0.280	3	0.057	9
economic factors	0.188	4	Importance of trade, logistics industries	0.496	1	0.093	4
			Globalization of economy	0.281	2	0.053	10
			increase of trade volume	0.223	3	0.042	12

Inconsistency: main factor(0.05), career factor(0.03), Policies · System factor(0.05), Environment factor(0.06), economic factors(0.04)

## 2) 서비스기업

서비스기업 응답자들의 상위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는 일관성 비율이 0.02로 일관성에 무리가 없으며, 경제적 요인(0.325)이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환경 요인(0.242), 정책·제도 요인(0.221), 경력 요인(0.212)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는 창업에 대한 의지(0.422), 직무경험(0.311), 물류, 무역 전문지식(0.2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제도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는 간소화된 창업절차(0.409), 창업지원제도

(0.317), 창업규제 완화정책(0.27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는 IT를 활용한 업무편리성(0.455), 창업의 사회적 인식(0.292), 전자성거래의 보편화(0.252)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는 물류, 무역산업의 중요성(0.399), 교역량의 증대(0.364), 경제의 글로벌화(0.237) 순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상위요인들 각각의 일관성 비율도 모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연계 중요도로 나타난 하위요인의 전체적인 최종순위는 경제적 요인

**Table 3.** AHP Analysis Result of Service Companies

Main factor			Sub-factor			Main factor · Sub-factor Related importance	final rank
Factor	Importance	Rank	Factor	Importance	Rank		
Career factor	0.212	4	Logistics, trade professional knowledge	0.267	3	0.057	12
			Job experience	0.311	2	0.066	9
			Entrepreneurial intention	0.422	1	0.089	5
			Start-up support system	0.317	2	0.070	8
Policies · System factor	0.221	3	Mitigation policy on start-up regulation	0.274	3	0.061	10
			Simplified start-up procedure	0.409	1	0.090	4
			Social perception of start-up	0.292	2	0.071	7
Environment factor	0.242	2	Generalization of e-commerce	0.252	3	0.061	10
			Task convenience using IT	0.455	1	0.110	3
			Importance of trade, logistics industries	0.399	1	0.130	1
Economic factors	0.325	1	Globalization of economy	0.237	3	0.077	6
			Increase of trade volume	0.364	2	0.118	2

Inconsistency: main factor(0.02), career factor(0.001), Policies · System factor(0.007), Environment factor(0.02), economic factors(0.007)

의 하위요인인 물류, 무역 산업의 중요성이 최종 1위로 도출되었으며, 2위 교역량 증대, 3위 IT를 활용한 업무 편리성, 4위 간소화된 창업 절차, 5위 창업에 대한 의지, 6위 경제의 글로벌화, 7위 창업의 사회적 인식 순서로 나타났다.

물류 및 무역 창업 동기요인 중 상위요인에 대해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상대적 중요도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제조기업은 경력 요인을, 서비스기업은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정책·제도 요인, 환경 요인에 대한 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간 연계중요도의 경우 제조기업은 경력 요인과 정책·제도 요인을 중요시 한 반면, 서비스기업은 경제적 요인과 환

경요인을 중요시 하여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조기업의 경우 물류, 무역 전문지식을 활용한 직무경험을 중시하였으며, 해당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에게 창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서비스기업은 물류, 무역산업이 중요하고 이로 인한 교역량의 증대와 이를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한 IT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3. 창업 동기요인에 대한 T-검정

물류 및 무역 창업 동기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AHP 분석에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두 집단이 기본적으로 물류, 무역산업과 창업에 대

Fig. 2. Comparison of Recognition of Startup Motivation Factors by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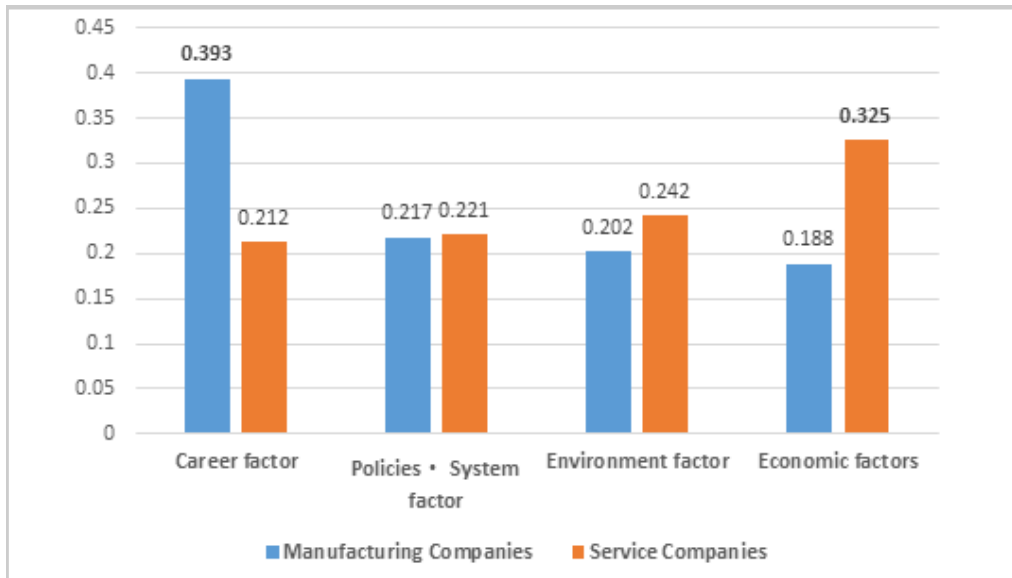


Table 4. Main factor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

Category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
	Manufacturing industry (n=50)	Service industry (n=55)	Manufacturing industry	Service industry		
Career factor	0.380	0.235	0.215	0.141	4.030	0.000
Policies · System factor	0.200	0.222	0.925	0.140	-0.966	0.336
Environment factor	0.192	0.243	0.121	0.135	-2.015	0.047
Economic factors	0.228	0.300	0.209	0.174	-1.915	0.058

한 의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이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들에 대해 중요도 평균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요인별 가설은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다. 정확한 검정을 위해 쌍대비교로 도출된 AHP 분석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상위요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상위요인에 대한 각 집단의 중요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요인 중 경력 요인과 환경 요인 2가지만이 유의확률 0.05이하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경력 요인의 경우 제조기업(0.380)이 서비스기업(0.235)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 요인의 경우 서비스기업(0.243)이 제조기업(0.192)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Main factor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Category	Hypothesis	Result
H1-1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career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H1-2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policies · system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Reject
H1-3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environment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H1-4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economic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Table 6.** Sub-factor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Category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
		Manufacturing industry (n=50)	Service industry (n=55)	Manufacturing industry	Service industry		
Career factor	Logistics, trade professional knowledge	0.502	0.277	0.241	0.191	5.264	0.000
	Job experience	0.264	0.322	0.150	0.198	-1.719	0.089
	Entrepreneurial intention	0.234	0.401	0.239	0.214	-3.763	0.000
Policies · System factor	Start-up support system	0.471	0.306	0.238	0.215	3.723	0.000
	Mitigation policy on start-up regulation	0.248	0.297	0.120	0.208	-1.512	0.134
	Simplified start-up procedure	0.281	0.396	0.253	0.202	-2.560	0.012
Environment factor	Social perception of start-up	0.423	0.293	0.269	0.190	2.831	0.006
	Generalization of e-commerce	0.267	0.251	0.154	0.142	0.540	0.589
	Task convenience using IT	0.310	0.456	0.254	0.216	-3.161	0.002
economic factors	Importance of trade, logistics industries	0.479	0.385	0.244	0.247	1.942	0.055
	Globalization of economy	0.277	0.237	0.153	0.179	1.247	0.215
	Increase of trade volume	0.244	0.378	0.188	0.217	-3.387	0.001

**Table 7.** Sub-factor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Category	Hypothesis	Result
H2-1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logistics and trade professional knowledge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H2-2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job experience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Reject
H2-3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H3-1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start-up support system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H3-2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mitigation policy on start-up regulation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Reject
H3-3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simplified start-up procedure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H4-1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social perception of start-up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H4-2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generalization of e-commerce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Reject
H4-3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task convenience using IT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H5-1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importance of trade, logistics industries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Reject
H5-2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globalization of economy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Reject
H5-3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average importance of Increase of trade volume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Accept

## 2) 하위요인 T-검정

〈Table 6〉과 같이 하위요인에 대한 각 집단의 중요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가지 요인 중 7개 요인이 유의확률 0.05이하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경력 요인 중 물류, 무역 전문지식의 경우 제조기업(0.502)이 서비스기업(0.277)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창업에 대한 의지의 경우 서비스기업(0.401)이 제조기업(0.234)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제도 요인 중 창업 지원제도의 경우 제조기업(0.471)이 서비스기업(0.306)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간소화된 창업절차의 경우 서비스기업(0.396)이 제조기업(0.281)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요인도 마찬가지로 창업의 사회적 인식의 경우 제조기업(0.423)이 서비스기업(0.293)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IT를 활용한 업무 편리성의 경우 서비스기업(0.456)이 제조기업(0.310)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교역량의 증대 요인만 유의미하게 도출되었고, 서비스기업(0.378)이 제조기업(0.244)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제조 및 서비스기업의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들이 물류, 무역 창업을 결정할 시 어떠한 동기 요인들이 창업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을 배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물류, 무역 창업 동기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업 동기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도출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을 활용하였으며, 두 집단간의 중요도 평균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물류, 무역 창업 동기요인을 상위 요인 4가지와 하위요인 12가지로 선정해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HP 분석을 통해 물류 및 무역 창업 동기요인에 대해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상대적 중요도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제조기업의 경우 물류, 무역 전문지식을 활용한 직무경험을 중시하였으며, 해당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에게 창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서비스기업은 물류, 무역산업이 중요하고 이로 인한 교역량의 증대와 이를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한 IT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제조기업은 개인의 역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서비스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함으로써 집단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각 집단 내에서는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집단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물류, 무역산업과 창업에 대한 의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창업하고자 하는 산업이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창업 주체자의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두 집단 모두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물류, 무역산업과 교역량의 증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두 집단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의 중요도 평균차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AHP 분석에서 각 집단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중요도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비슷한 중요도를 보인 요인들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연구들에서도 AHP 분

석만으로 창업 동기요인의 중요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연구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몇 가지 제언을 통해 물류 및 무역 창업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물류, 무역 창업을 시작하여 유지하기 위해 산업의 전면적인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분야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창업 후 5년 내 폐업할 확률이 90%에 육박하며 창업자가 폐업하는 주요 이유 중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늦은 대응과 경쟁에서의 밀림이 있다. 이에 창업 후 유지를 위하여 IT를 결합한 혁신 선도 창업 정책이 필수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창업 사례조사를 통해 일본의 물류테크와 같은 창업 유도를 통한 물류, 무역 혁신 플랫폼 구축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준다.

둘째, 창업 이후의 정부의 사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는 지식, 기술집약적 창업이 촉진되고,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 및 제도의 선진 및 판촉 활동과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창업 준비부터 매각 등의 과정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을 결정할 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구직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활동을 원하는 신규 창업자 상당수는 창업을 쉽게 생각하여 1년 미만의 준비를 거쳐 창업에 나서고 있다. 선부른 창업으로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습득 없이 창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가에게 실질적 교육이나 창업컨설팅의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설문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여 결과값에 대한 자세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설문이 불가하여 비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로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였다. 이는 설문 정확도를 저해할 수 있어 향후 면대면 조사를 통한 인터뷰 조사를 병행 시행함으



로써 위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는 이런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해 창업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

이 있으며, 관련된 이론적 발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물류, 무역업의 발전을 위해 창업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Ahn, Tae-Kun (2015),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of increased trade by FTA in Korea",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hD thesis.
- Ajzen, I. (1987). "Attitudes, traits, and actions: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1-63.
- Bagozzi, R., H. Baumgartner and Y. Yi (1989).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intentions as mediators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0(1), 35-62.
- Bird, B. J.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Gnyawali, D. R. and D. S. Fogel (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 Im, Gyo-Sun and In-Ho Jeon (2015). "A Study on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Potential Fou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422-432.
- Jeong, Yeon-Su and Sung-Eui Cho (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for new business startups: Implications for education program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8(1), 57-73.
- Jeon, Hye-Jin and Jae-Whan Park (2015). "A Study on Change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on Wome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2), 85-96.
- Jo, Han-Na and Myung-Jin Kim (2019). "A Study on IPA Analysis of Start-ups by Government Poli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3), 929-938.
- Jo, Man-Seok and Seon-Woo Kim (2017). "US Start-up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Science & Technology Policy*, 29, 1-18.
- Jo, Yoon-Ah, Min-Kyu Park and Yun-Geol Moon (2015). "A Study on Recognition for Foundation Before and After Foundation Education -Focused on the case of senior foundation education in M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433-446.
- Kim, Chun-Ho and Yon-Ho Yu (2019).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22(3), 65-81.
- Kim, Eun-Kyung and Joun-Jeun Kim (2015). "The Effects of Individual Career Orientation and Preparation of Old Ag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Effects of Moderating Role of Social

- Network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27-36.
- Kim, Hyung-Ho and Heon-Deok Yoon (2015).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start up Support system for Failed Businessme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235-252.
- Kim, Hyung-Jun, Tae-Ki Min, Jing-Bu Wang, Schuier Diana and Keun-Yeob Oh (2020) “Seeking for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from National Level Dat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6) 55-65
- Kim, So-Yeon, Min-Hyung Cho and Moo-Weon Rhee (2020). “A study on Singapore Startup Ecosystem using regional transformation of Isenberg(201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47-65.
- Kim, Sung-Hoon and Jung-Min Nam (2016).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75-183.
- Kim, Young-Tae and Chul-Moo Heo (2021). “The Influence of Senior Entrepreneurship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2), 109-121.
- Krueger, N. F., M. D. Reilly and A. L. Carsrud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2.
- Kwak, Hye-Jin and Moo-Woon Rhee (2018). “Comparative Study of a Startup Ecosystem in Seoul, Korea and Chengdu, Chin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5), 131-154.
- Lee, Byeong-Gweon and In-Ho Jeon (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focusing on potential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213-230.
- Lee, Byung-San (2015). “Tax Incentive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133-139.
- Lee, Jae-Seok and Sang-Myung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Ree-Ha, Chang-Ho Yu, Young-Hwan Yoo and Kwang-Ryul Baek (2019).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ax Reduc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 Start-up Enterprise”, *Tax Accounting Research*, 59, 79-116.
- Nguyen, Thi-Viet-Ha and Hyun-Chae Park (2017). “The Antecede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being E-commerce Trader”,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76, 147-166.
- Oh, Sang-Hun and Kyu-Soo Ha (2013).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8), 143-157.
- Park, Gug-Gun and Kyu-Soo Ha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ffice Workers' Job Performance Ability, Retirement Readiness, and Future Anxiety on Entrepreneurship Wil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nother Success Expectation on Life after Retirem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6) 167-187

- Park, Jong-Bok, Jong-Hae Park, Sung-Sik Bahn and Hyun-Bong Yang (2015). “An Analysis on Relative Efficiency of Korean Entrepreneurship Policy: based on comparison with innovation-driven economi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0(3), 76-101.
- Park, Tae-Yang (2010). “The Study On The Priority Decision of Facilities For In-cheon Port Waterfront Development Using AHP Method”,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 Perugini, M. and R. P. Bagozzi (2001).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1), 79-98.
- Schein, E. H. (1978).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needs*, (Vol. 6834), Addison-Wesley.
- Schlaegel, C. and M. Koenig (201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 A Meta-Analytic Test and Integration of Competing Model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91-332.
- Shapero A. (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72-90.
- Shapero, A. (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 83-88.
- Shook, C. L., R. L. Priem and J. E. McGee (2003). “Venture creation and the enterprising individual: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Management*, 29(3), 379-399.
- Yoon, Bang-Seob (2004).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10.
- Yoon, Byeong-Seon and Young-Wook Seo (201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tartup' Activities of Preparatory Stage and Early Stage on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1-15.
- Yook, Chang-Hwan and In-Ho Jeon (2014).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in Korea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661-676.